

농정뉴스

90년까지 농지구입자금 1兆원 조성

農地賃貸借法시안 계약기간 3년이상, 農地委에 신고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채지주 발생을 막고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현행 농지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농어촌 개발기금을 설치, 오는90년까지 농지구입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세제를 개편하며 임차료를 규제하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제정 농민들의 과중한 임차료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새로 마련될 농지임대차 관리법(시안)은 밭, 논, 과수원 및 사실상 농지(도시계획법 적용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법령으로 임차료의 기준을 정하되 앞으로 읍면단위에 설치될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 군수가 조례로 지역별 지목별 작목별로 적정한 임차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법은 또 임차농의 임차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농지임대차계약 문서화를 원칙으로 했으며 30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

에 신고해야함은 물론 계약기간은 3년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 세제개편을 통해 자경농민을 위해서는 ▲자경하는 형제에게 농지를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자경하는 한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할 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해주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경우 취득세 등록세등을 면제해 주기로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오는 90년까지 농지구입자금등을 지원키 위해 1 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개발기금법안을 마련, 내년에 우선 2 천억원을 농민에게 연리 5%, 2년거치 18년분할상환조건의 장기저리로 농지구입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보리 생산량 2 백28만 8 천섬

올해 보리생산량은 정곡기준 모두 2 백28만 8 천섬(31만5천5 백48t)으로 최종 집계됐다.

농수산부가 확정 발표한 올해 보리생산량은 ▲겉보리가 5만 2

천 2백60ha에서 81만5천섬(11만2천3백81t) ▲쌀보리가 8만8천4백64ha에서 1백47만3천섬(20만3천1백67t) 등 재배면적 14만7백24ha에서 2백28만8천섬을 수확했다.

農林水産部로 개칭 농수산부, 산림청 흡수

정부는 농수산부의 명칭을 농림수산부로 변경하고 산림청의 소속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가 가구당 부채 202만원

이자는 한집평균 年32만원

농촌에 부채가 많은데다 私債의존도가 높아 농민들은 평균 年16%의 비싼 이자돈을 쓰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부가 분석한 「농촌부채현황과 金利구조」에 따르면 농촌의 총부채는 85년말 현재 3조8천9백82억원(가구당 2백2만4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1조1천2백66억원이 私債로 사채의존율이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私債의 평균금리는 年26.4%로 높아 이를 농협등 다른 금융기관부채와 합해도 평균 이자부담률은 年16%에 해당해 농촌의 한해 이자부담만도 6천2백37억원이나 된다.

한농가당 1년에 32만4천원의 이자를 갚아야하는 셈이다.

農工지구 3곳 추가지정

정부는 忠南燕岐군全東면의 4만5천평, 江原春城南南면의 3만2천평등 2개농공지구 예정지구를 농공지구로 지정하고 慶南密陽군密陽읍의 2만5천평을 전국 최초로 특별수시지정지구로 지정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3개 농공지구의 추가지정으로 이날 현재 전국의 농공지구는 16개지구로 늘어났으며 燕岐지구는 29개기업, 春城지구는 14개기업이 입주해 1백%분양됐고 密陽지구는 韓國화이바등 3개기업이 입주했다.

농공지구로 지정된 16개지구는 지난 84년에 지정된 7개지구가 공단조성을 완료, 68개기업이 입주하여 입주분양률이 95%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지정한 9개지구중 密陽을 제외한 8개지구엔 1백1개기업이 입주, 분양률이 94%에 달하고있다.